

함께 가는 국민,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

- 2011 정부부처 업무보고 -

- ✓ 보건복지부
- ✓ 국가보훈처
- ✓ 여성가족부
- ✓ 농림수산부 (농촌진흥청, 산림청 포함)
- ✓ 환경부 (기상청 포함)
- ✓ 국토해양부



CONTENTS

- 04** 서민이 행복한 나라,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
– 보건복지부
- 08** 튼튼한 국가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
– 국가보훈처
- 11** 여성 아동 지역안전망 강화와 아이돌봄 사업 확대로
서민의 힘이 되겠습니다
– 여성가족부
- 15** 농어촌은 잘살고 국민은 더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
– 농림수산식품부 (농촌진흥청, 산림청 포함)
- 19**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, 그린카드·저탄소카의
시동을 걸겠습니다
– 환경부 (기상청 포함)
- 23** 함께하는 성장으로 일류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
– 국토해양부

*청와대 정책소식지는 2010년 12월에 실시된 부처별 2011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
주요 내용들을 모아 '2011년 정부부처 업무보고'를 3편에 걸쳐 발간합니다.

1

서민이 행복한 나라,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

- 보건복지부 -

행복한 보건복지로
국민의 미래를 열겠습니다.



1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.

- [서민·중산층 지원] 역대 최대의 보건복지예산 증가('10년 31조 원→'11년 33.6조 원)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.
 -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('11.10월, 5만 명), 서민·중산층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(92만 명) 등
- [현장소통·국민체감정책 발굴·추진] 작지만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0가지 약속을 선정하여 실천하겠습니다.
- [서민 의료안전망 강화] 중증 질환중심의 의료보장 체계로 확대*하고, '의료전문 모금기관'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.

*간암치료제 검사바정 급여, 아동암환자 치료 급여 인정

2 빈곤탈출을 돕는 희망사다리가 되겠습니다.

- [탈빈곤 타겟그룹 명확화]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(28만 명) 중 4만 명에 불과한 자활지원대상(고용부 취업지원 포함)을 '12년까지 총 19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


- [세심한 사례관리] 민·관협력 사례조정회의로 맞춤형 탈빈곤 경로를 제시하겠습니다.
 - 불안정한 취업자(7만 명)는 신규로 취업·창업 지원, 안정적 취업자(8만 명)는 일할수록 유리하게 제도를 재설계*하여 탈수급을 유인
 - * 공과금 감면 등 복지혜택의 수급자 집중 완화, 일을 통한 탈수급시 2년간 교육·의료비 지원(일반회계), 사회보험료 지원(자활기금), 자산형성(희망키움통장) 지원 확대
 - 미취업상태인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(4만 명)에 대해서는 단순근로형 자활사업을 시장형 위주로 개편하여 취업역량 제고
- [범정부 협력체계] 각 부처 복지사업의 중복을 막고, 수급자보다는 탈수급 차상위계층 등에게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정체계를 마련(총리실)하겠습니다.

3 서로 돌보는 나눔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.

- [모금기관 신뢰성 회복]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혁*, 모금기관 경영공시제 및 기부금 사용 전과정 인터넷 공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.
 - * 기부자, 배분대상자 등으로 감사위원회 구성, 부정행위자 즉시 퇴출제 등
- [존경받는 나눔] 사회지도층 기부서약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, 나눔의 날 제정, 나눔 유공자 포상 및 나눔 국가상징공간*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.
 - * 나눔실천자의 공적을 기리고, 나눔교육 및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공간
- [新나눔모델, (가칭)Korea Guard] 장기간의 조직적 나눔을 통한 참여자 리더십 함양과 지역복지수요 충족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겠습니다.
 - 대학·NPO·NGO 중심으로, 청년·은퇴 전문직 노인 등 재능나눔 조직화

4 행복e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겠습니다.

- [수요자 중심 원스톱서비스] 복지부·지자체 뿐 아니라, 전부처 복지사업, 민간자원 까지 행복e음으로 연계하여 국민체감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겠습니다.
 - ('10) 복지부, 여성부 등 4개 부처 112개 사업→('11~) 11개 부처 149개 사업으로 확대

- [찾아가는 서비스] 행복e음에 구축된 차상위계층 자료(12백만 명)를 활용, 서비스 필요가구 발굴, 공공·민간자원과 연계하여 빈곤을 예방하겠습니다.
- [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개선] 행복e음을 활용한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5 보건복지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. (현정부 5년간 80만 명 목표)

- [10대 유망 보건복지서비스 육성] 신규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보건의료 신산업 육성으로 '12년까지 14만 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습니다.
* '11~'12년 보건의료 등 시장 확대에 따른 일자리 증가(22만 명) 포함, 총 36만 명 일자리 창출
-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화, 맞춤형 보육 확대, 공동간병 활성화 등 일·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
- u-health, 뷰티서비스, 건강관리서비스, 임상시험, 해외환자 유치 등 신규시장 형성으로 전문직종 청년일자리 창출
- [제3섹터 활성화] 비영리법인 설립요건 완화, 자활공동체 창업(5백 개),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확대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.

6 2020년 HT(Health Technology) 세계 7대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. (현재 20위권)

- [메디컬코리아] 신흥시장 6개국* 집중 마케팅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확대('10년 8만 명 → '12년 15만 명) 및 병원플랜트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. ('10년 49개 → '15년 100개)
* 러시아, 카자흐스탄(2011년 '한국의 해'), 몽골, UAE, 카타르, 쿠웨이트
- [북미시장 진출] 미국과 우수 의약품 제조기준(GMP) 상호인증 체결 등으로 미국시장 점유율을 높이겠습니다. ('10년 1.1% → '15년 3.4%)
- [HT 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] 글로벌 신약 개발, 웰빙형 의료기기 산업 육성, 「국가별 피부특성 은행」 구축 등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

7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.

환경요인(고령화/소비수준 증가/신기술 확대), 구조요인(과잉진료/과잉이용/중복투자)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 급증 ('10년 1.3조 원 적자, 누적적립금 9천억 원으로 감소 예상)

- [단기대응] CT 등 보험가격 조정, 약제비 절감,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재정수단을 총동원하여 '11년 적자규모를 최소화(3~5천억 원 목표)하겠습니다.
- [근원적 개혁] 「경증→의원, 중증→병원」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.
 - ※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 신설 및 총체적 개혁방안 수립('11.8)

2

튼튼한 국가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

- 국가보훈처 -



모두에게 신뢰를 주는
안보국기를 만들겠습니다.

1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, 애국심을 고취하겠습니다.

-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「나라사랑 교육」을 활성화하겠습니다.
 - ‘천안함 폭침’, ‘제2연평해전’ 계기 수업교재를 발간하여 학교 교육에 활용하고, 청소년들이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문 봉사하는 「나라사랑 앞섬이」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
 - 공무원 역사(안보)인식 제고, 방송매체를 활용한 국민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재외동포, 다문화 가정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활성화
 - 국가수호 의지를 다지는 보훈기념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.
 - 작년도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, 6·25전쟁 60주년 사업 등이 국민들의 국가 자부심 향상에 크게 기여한 성과를 이어받아 ’11년 보훈기념행사는 ‘국가수호 의지’를 다지는 행사로 추진
 - ‘천안함 폭침 1주기 추모행사’는 특별전시회, 사이버 참배, 안보 견학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희생자의 소속부대, 출신학교가 참여하는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‘국민들이 잊지 않고 기억’하도록 할 예정
 - 6·25 행사는 ‘청소년 국토대장정’ 등 정부, 민간이 함께 안보의지를 다지고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
 - ‘제2연평해전 기념식’은 NLL수호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행사로 추진
 - 호국보훈의 달(6월)에는 현충일이 포함된 주를 「나라사랑 주간」으로 지정하여 대국민 캠페인, 위로·위문 등 행사를 집중 실시
 - ‘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’은 젊은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음악회, 보훈문화 페스티벌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
 - 국립묘지에서는 현충일 행사와 연계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호국영웅 이름 다시 부르기(Roll Call)* 행사를 개최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자긍심을 높임
- * 각군대표, 학생,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 참여, 현충원·호국원 및 부산 UN묘지에서 각 15분씩 안장자 이름 낭독(총 안장자 16만 명)

- 현충시설을 「호국안보 체험장」으로 활용하겠습니다.
 - 전국에 산재한 현충시설을 '나라사랑 실천'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「나라사랑 기림터」로 브랜드화하고 '1학교·1사·1시설' 결연 참여와 '현충시설 지킴이' 사업을 확대 전개
 - 6·25 최대격전지인 낙동강 지구 호국벨트 사업을 지원하여 '찾아와서 느끼고 돌아가는 호국현장'으로 조성
 - 대학생 등의 전적지 순례와 주요 참전기념행사를 연계함으로써 참전용사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행사로 추진

2 보훈제도를 선진화하여 국가안보를 뒷받침하겠습니다.

- 중상이자·전몰(순직)유족·참전용사 등 안보희생자 보상 및 예우를 높ی겠습니다.
 - 거동이 불가능한 상이 1급 중상이자에게 특별수당 지급, 갑작스런 생계주체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전몰·순직유족 보상 확대 (보훈예산 최초로 보상금 차등인상 : 상이1급 19%, 전몰유족 7%)
 - 참전명예수당 (월 9→12만원), 무공영예수당 (월 15→18만원)
 - 생활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희망하는 취업·교육·주택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
 - 기업·단체의 후원문화 조성 등 국민적 관심도 제고
- 고령 보훈대상자의 노후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·복지지원 수준을 높이겠습니다.
 - 전국 5대 권역에 보훈요양원 연차적 확충('06~'12, 1,002억 원, 대구 '11년 개원, 수도권 추가건립), 보훈중앙병원(600병상) 신축병동 '11년 개원
 - 고령의 6·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재가복지 사업을 확대
 - 국립묘지를 적기에 확충하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 수요에 적극 대응
 - 안장식에서는 대통령 추모메시지, 기억의 태극기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등 국가가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표시
 - 보훈의료·복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반영하고, '복지정보연계망'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
- 젊은 경상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 - 재활상담, 치료, 적응훈련이 연계된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고, 경상이자 일시금 제도를 도입

- 정신적 스트레스(PTSD) 진료를 위해 보훈중앙병원에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전문 클리닉 설치
 - 직업활동이 가능한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취업제도를 개선
- 제대군인이 성공적으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(3,255명)하겠습니다.
- 경기권 제대군인지원센터 추가 설립, 연령별·직종별 특화된 「구인·구직 만남의 날 행사」 등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강화
 - 멘토링 제도 활성화, 무료법률 구조지원 등을 통해 전역 이후 취업관련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

3 6·25 참전국과 보훈외교를 지속해 국격을 높이겠습니다.(G20 후속조치)

- 6·25 60주년 해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- UN참전용사 위로 감사 행사는 7.27. 정전협정일, G20 정상회의 개최(프랑스)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
 - 英연방국 「국제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」(7.27.) 지정 협조, 보훈부장관 국제포럼*에 정례적 참가
- * 참가국 : 미국·영국·캐나다·호주·뉴질랜드·독일·프랑스·네덜란드·대한민국
-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 지속(650명), UN참전용사 현지방문 위로(11회, 참전국 참전용사·시민 1만 명), 부산UN묘지 안장자 유가족 위로·격려(영연방 등 40명)
 - 저소득 UN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*과 UN참전국(16개국)이 참가하는 대학생 평화캠프를 확대 실시
- * 공무원 봉급 우수리 장학금('10년 472명 43백만 원 → '11년 630명 240백만 원), 한국외대('14년까지 매년 32명), 국립국제교육원 장학 지원('11년 10명)

- 참전기념시설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.
- 미국·호주·필리핀 등 UN참전국의 참전기념시설 건립 적극 지원, 부산 UN 평화기념관을 건립('11.8월 착공)*하여 참전국과의 교류의 장으로 활성화
- * 부산 UN기념공원 인근 당곡 공원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

<국외 6·25전쟁 UN참전국 기념시설 현황>

계(개소)	미국	캐나다	영국	프랑스	벨기에	뉴질랜드	호주	네덜란드	필리핀	기타
232	143	19	9	7	12	6	5	5	4	22

- 정부·기업 등 해외출장 시 방문국 6·25 참전시설 참배를 활성화하는 등 UN참전국과의 상호 이해증진의 매개체로 활용

3

여성 아동 지역안전망 강화와 아이돌봄 사업 확대로 서민의 힘이 되겠습니다

- 여성가족부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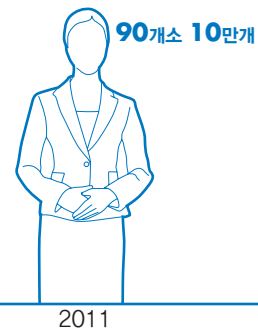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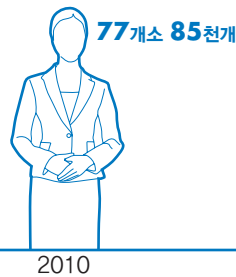


1 국격에 맞는 여성인력을 활용하겠습니다.

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연계하겠습니다.

- '새일여성인턴제' 지원 기간 연장('10년 3개월→'11년 6개월)

- '10년 77개소 85천 개 → '11년 90개소 10만 개 일자리



○ 성별영향평가, 국가성평등지수, 성인지예산제도의 상호연계*를 통한 선진화된 여성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
* 성평등지수 측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전략과제 선정 및 성인지 예산 분석 (2011년 전략과제 : 일자리, 안전)

○ UN Women 출범에 기여하는 등 국가위상에 걸 맞는 국제협력을 전개하겠습니다.

- 우리나라, UN Women 초대 집행이사국(3년 임기)으로 선출('10.11)

- 여성관련 국제기구 기여 확대를 통한 주도적 리더십 및 영향력 확보

※ '10년 UNIFEM 3만불 → '11년 UN Women 465만불

- OECD, UNDP, WEF 등 주요 국제기구 여성분야 활동 참여

- 청년여성인재를 선발·양성하여 UN,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인턴십 진출 지원 및 국제회의 참가 기회 제공

2 온가족의 희망을 보듬겠습니다. (가족가치 확산과 취약가족 지원강화)

- 가족사랑 키우기 사업 추진을 통한 가족 가치를 확산시키겠습니다.
 - 가족친화기업, 공공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
 - 사회적 재난 등 위기상황 가족 지원서비스인 '가족보듬사업' 확대 ('10년 10개 시·도 → '11년 16개 시·도)
- 한부모·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 -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대상 양육비 인상(10만원→15만원)
 - 조손가족에 대한 자녀 학습도우미 파견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 신규 추진 (4개 시·도 시범사업)
- 맞벌이 중심으로 양육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개편하겠습니다.
 - 취업부모 등을 대상으로 예산 및 신규가정 수요 등을 고려, 지원한도(연 480시간) 외 추가 필요시간 지원
 - ※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건수 : 90만 건('10년) → 135만건('11년)
 -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% 이하로 확대
 -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및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공급자 경쟁
 - 엄마가 인정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운영 (161개소 → 200개소)
 - 공동육아나눔터와 연계한 가족품앗이 사업 지역 확대('10년 5개 지역→ '11년 23개 지역)

3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겠습니다.

-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국제결혼을 추진하겠습니다.
 - 자본금 등록요건 신설 등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강화,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 및 단속
 - 주요 결혼상대국(중국, 베트남, 필리핀 등 7개국) 한국대사와 협의체 운영,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'국제결혼이민관' 파견

- 결혼이민(예정)자에게 입국전 한국어교육, 한국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현지교육 확대
 - ※심화교육 실시 : 8시간→24시간
 - 대상국가 확대 : 베트남, 몽골, 필리핀('10년, 3개국) + 캄보디아, 우즈베키스탄('11년, 5개국)
- 결혼사증제도 개선 등 결혼이민에 대한 관리강화(법무부 협조)
-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자녀 언어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 - 한국문화이해 교육, 가족통합교육, 상담 등 다문화 가족서비스 수혜율 제고 ('10년 17% → '11년 25%)
 - 방문교육서비스 확대(방문지도사 '10년 2,240명 → '11년 3,200명)
 - 포털 '다누리'를 통한 온라인 다국어지원 확대('10년 4개언어 → '11년 8개 언어)
 - '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-1366(9개 언어)' 상담서비스 확대(주·야간 운영 → 24시간 운영) 및 국제결혼 남성·부부 대상 다문화사회 이해, 가정폭력 예방 등 교육('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') 실시
-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.
 - 다문화 언어지도사 배치 확대('10년 100명 → '11년 200명) 및 엄마(아빠)나라 언어 습득 지원을 위한 「언어영재교실」 운영(이중언어강사 100명)
 - 자녀 생애주기(신생아, 유아기, 아동기)별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'좋은부모 교육' 및 '자녀 정서·생활지원 서비스' 시범 제공
 - 동반·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 운영('10년 50명 → '11년 600명) 및 전문가 멘토링(120명)

4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.

- 신종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'청소년 그린벨트 조성'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.
 -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전수조사, 술·담배 구입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

○가출·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.(학교·가정복귀 및 취업연계강화)

-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
(수혜 청소년수 '10년 13만 명 → '11년 15만 명)



2010



2011

○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.

- 자원봉사터전(사회복지관 등) 인증 확대: ('10년)7,600→('11년)8,500개소

5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.

○통합포털과 연계한 '우리지역 가장 안전한 등하굣길 찾아주기'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
- ※ 지역별 아동안전지도 작성 및 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 표준 운영모델 개발·보급

○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를 신규로 시행하겠습니다.

- ※ 성범죄자 거주사실·신상정보를 지역주민 대상 우편 고지 실시

○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취업 제한, 아동·청소년 관련 교육기관(24만 개소)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겠습니다.

4

농어촌은 잘살고 국민은 더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

- 농림수산식품부 - 농촌진흥청, 산림청 포함



1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축산업 허가제 도입, 해외여행 후 소독의무화 등 축산농가·관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, 관련제도 개선 및 교육·홍보를 통해 축산농가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.
 - 농가의 책임(신고, 방역, 기록 등)에 따른 처벌규정 도입 및 차등보상 실시
- 악성 가축 질병 발생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.
 - 지자체 가축방역관 예찰·검사 및 초기진단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,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키트 공급 추진
 - 발생시 초동대응팀과 동시에 초기매물처리팀 현장 투입

2 농수산물 가격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.

-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대 설정, 위기단계별 대응 매뉴얼 운영, 농어업 관측개선, 계약재배 및 주요양념채소·수산물의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 - 채소류 계약재배 확대 : (현행) 생산량의 10% → ('11년) 15%(배추·무 20%)
 - 비축 : 양념류 수요량의 5%(현행 3%), 수산물 1%(현행 0.5%)로 확대
- 도매시장 거래방식 다양화, 사이버 거래와 직거래 확대 및 불공정 거래 감시기능 강화 등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겠습니다.
- 가격 폭등시 1일 가격상승 폭 제한 등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.

3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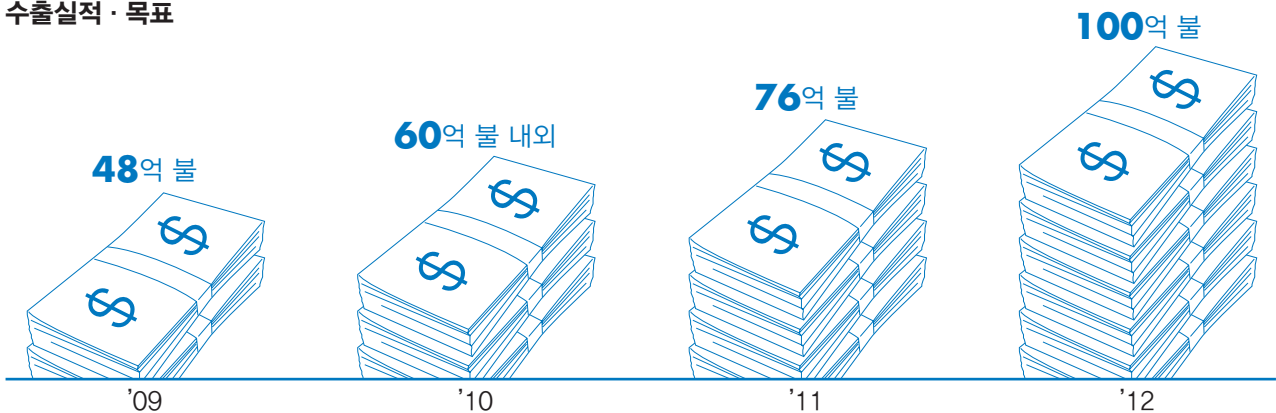
- 쌀 수요에 맞춰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'15년까지 70만 ha 수준까지 축소하겠습니다.
 - 벼 재배면적(밥쌀/전체)(천ha) : ('10) 856 / 892 → ('11) 808 / 844
- 가공용 쌀 계약재배 확대, 핵심기술 R&D 본격 추진 등으로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. (가공용 소비를 현재 6%에서 15% 수준으로 확대)
- 관세화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'12년 관세화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.



4 농림수산물식품산업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늘리겠습니다.

- 농식품수출전진기지 건설, 김치·인삼 등 전략품목 육성, 중국시장 공략 강화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.

수출실적·목표



- 고부가가치 농림수산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R&D를 강화하겠습니다.
- 외해양식, 친환경 껏별양식 등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.

5 효율적인 농림수산물산업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.

- 농협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, 경제사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는 등 농수협을 개혁하겠습니다.
- 경영체 규모에 따른 지원 방식 차별화 등 보조금을 개편하고, 모태펀드 등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, 농식품 관련 조직의 기능을 효율화하겠습니다.
- 기후변화 적응품종·기술 개발, 재해보험 강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겠습니다.

6 10만 정예인력 육성을 통해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겠습니다.

- 농어업 전문인력·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.
- 핵심리더 주도하에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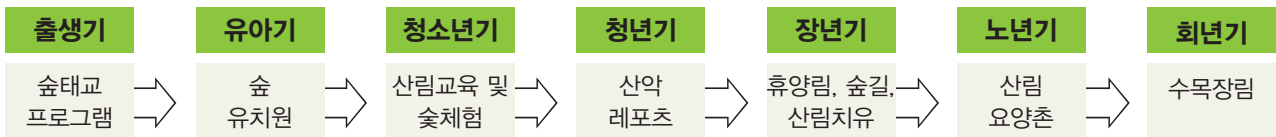
7 강소농(強小農) 실현을 위한 농업녹색기술 개발·보급에 힘쓰겠습니다.

- [R&D]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농업녹색기술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
 - 친환경·농식품 안전관리·품목별 경쟁력 제고·고부가 생명산업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
- [기술보급] 농업경영체의 역량 향상을 위한 실용기술 보급으로 강소농(強小農)을 육성하겠습니다.
 - 시범경영체 육성, 신기술 보급, 품목별 경영진단, 농업비즈니스 교육

- [기술공여] G20 후속 ‘개도국 빈곤 해결’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 - 대륙별 기술협력협의체 운영(아시아, 아프리카),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(KOPIA) 확대, 외국인 기술훈련

8 산업 · 경관 · 복지가 어우러진 녹색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.

- 산림수종갱신, 목재펠릿 에너지화 등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- 도로변, 가시권 산림정비로 선진한국에 걸맞는 산림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.
- 숲생애에 걸쳐 산림혜택을 누리는 산림복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.




- 산불 등 산림재해 저감, 산림생물 다양성 강화,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등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.
-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자원외교 다변화로 글로벌 그린리더십을 구현하겠습니다.
 - 아시아 최초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(UN-CCD) 당사국 총회 개최('11.10월, 창원)



5

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, 그린카드·저탄소카의 시동을 걸겠습니다

- 환경부 - 기상청 포함



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에
앞장하겠습니다.

1 녹색생활과 저탄소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겠습니다.

- '15년까지 30조 원 규모의 녹색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인증품목을 확대하고, 그린스토어(녹색제품 전문매장) 제도를 확대·개편하겠습니다.
- '11년 800대를 시작으로 '20년까지 100만 대의 전기차 본격 보급, 저탄소카(온실가스 100g/km 이하) 제도 도입 및 경차 혜택 이상의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.
- 그간 시범 추진해 온 10개 부문별 맞춤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고,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('11년 51개, '12년 분리배출 시행 모든 지자체)하겠습니다.
 -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상응한 비용 부담방식으로 전환 의미
-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470개 사업장에 첫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
 - '11년에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확대 추진, 산업계와 소통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의 도입·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
-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'Me First 운동'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 - 그린스타트 1천만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, 녹색성장교육 강화 및 수료자 커뮤니티 활동 촉진, 그린리더 2만 명 양성 및 지역별 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설
 - 친환경음식문화 전국 확산,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그린스토어 지정 등 전국적 녹색소비 유통망 구축

2 4대강 및 지류·지천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- 4대강 환경대책 이행('11년까지 전체의 79.4% 완료) 및 보(洑) 중심의 예방적 수질관리 및 수량·수질 통합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 - 4대강 수질오염 예보제 도입, 관계부처 합동 가동보 운영규정 마련
- 수생태 복원대책(생태하천·어도·습지조성·종 복원) 추진 및 수생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공개하며, 4대강 친환경 생태프로그램 개발 및 선진 친수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.
- 4대강 정책비전을 4대강 외 지류·지천까지 확대하여 수질·수생태 중심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, 빗물저장·이용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30억 톤의 수자원을 다목적 으로 확보하겠습니다.
 - 수질오염이 심한 47개 핵심 지류·지천('12년까지 8개 하천 우선 추진) 환경대책 추진, 생태하천 복원(1,667km) 및 도심복개하천 복원
 - 초기우수처리시설, 완충저류지, 자연형 여과시설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
 - 대형 지하빗물저장터널 설치, 공공시설 빗물저장시설 의무화 확대, 물수요 관리 및 순환이용 강화로 30억 톤의 다기능 수자원 확보

3 물산업 육성 및 생물자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.

- 상하수도 통합 및 위탁운영을 통한 물 전문기업 육성과 연관 물산업(재이용, 먹는샘물, 병입수, 대체용수, 기자재 등) 육성, 막여과 등 원천기술 및 공정·운영기술 개발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.
 - 164개 지방상수도를 '20년까지 39개 권역으로 통합
 - 처리장별 운영되는 하수도사업을 43개 권역으로 운영·통합
-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관리체계 선진화, 생물자원 조사·연구 및 산업적 이용·지원을 통한 생물자원산업을 육성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.

4 생활공감 환경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낙후지역 및 서민층을 우선 배려하는 물 복지를 구현하고, 석면피해 구제 및 환경성질환 예방·관리 강화, 민감계층인 유아·어린이 환경성질환 관리대책 추진, 중소 환경산업체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.
- 생활환경의 불편 4대요인(소음, 인공조명, 악취, 실내공기질)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요인(라돈·수은, 전자파, 미세먼지 등)의 관리를 강화하고, 안전한국을 위한 환경 인프라(재해기상 예보, 화학물질 등록·평가제 등)를 정비하겠습니다.
- 환경을 보호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자연자원의 현명한 활용의 모델을 개발·확산하겠습니다.
 - 순천만, 우포늪, 수도권매립지 환경관광 명소화, 한국적 생태관광 모델, 강릉 녹색도시 시범 조성 등
- 국민의 쉼터인 국립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공원관리 명품화 전략 및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(신규 지정, 해제)하겠습니다.
-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피해 유형별 배상기준을 합리화하고,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.
- 소음·실내공기·인공조명·악취 등 도시 생활환경 저해 4대 요소를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.
- 천리안위성 활용 기상관측을 선진화하고, 예보모델의 성능을 높이며, 예보관의 역량을 키우고, 뉴미디어를 활용한 재해기상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
5 환경법질서를 확립한 환경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.

- 고의·관행적 환경법 위반사례를 근절하고, 효율적인 법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.
 - 골뚝TMS 기기 조작 및 유사경유 유통근절, 자동차 배출가스검사제도의 효율화,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, 폐기물 불법유통·처리 단속 등

- 환경보호 무임승차 방지 및 공동책임, 원인자·수익자 부담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·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 -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책임, 수입업자의 재활용책임 강화, 국립공원 입장료 및 공원 접근성, 상하수도 요금체계 불공정 등 개선
-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민-관 파트너십(BEST 프로젝트), 정책고객 및 이해관계자 정책협의체 확대, 민-관 공동으로 국제회의 유치 및 준비, 글로벌 그린리더십을 강화하겠습니다.

6

함께하는 성장으로 일류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

- 국토해양부 -

세계를 여는 교통물류로
국토해양의 미래를 열겠습니다.

1 4대강사업 완공으로 활기찬 국토를 만들겠습니다.

- 보, 준설 등 핵심공정은 내년 상반기 완료하는 등 4대강 본류의 모든 공사를 내년말까지 완공*하고, 국민체감형 사업도 추진**하겠습니다.

* 경관거점(36경) 중심 수변생태공간, 자전거길(1,728km)도 내년중 조성 완료

** 나무심기 축제(3~4월), 희망의 벽 조성(8~9월), 4대강 국제포럼(5월)

- 4대강외 지류·지천 정비계획 수립하고, 친수구역특별법 하위법령 제정하며, 지류 하천 20개소를 물순환형으로 정비*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.

* 금오천, 광주천 등 4개지구 우선착수('11.6)

- 경인 아라뱃길의 차질 없는 개항('11.10)을 위해, 주요시설은 금년 6월 완료하고, 8월부터 시운전을 하겠습니다.



금강 행복1공구 금남보 :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('10.7.19)



낙동강 3공구 : 삼락공원('10.12.14)

2 국토해양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.

- 경제성장 회복세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'11년 국토해양 SOC 예산 23조 원의 62%(14조 원)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습니다.
-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산업기반을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.
 - 5대 국가산업단지를 미래 전략산업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고, 항만·공항*을 국가경제 발전의 전략거점으로 육성
- * 울산 오일허브('11착공), 평택당진항('11완공), 인천공항 3단계 확장(기본설계중)
- 해운산업의 성장엔진 다변화와 물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.
 - 선박관리·중개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, 해외광물자원 운송 등 신규시장 개척, 종합물류기업의 대형화·글로벌화 유도
- 크루즈터미널(제주, '11완공) 확충, 경비행장 건설 추진(지자체와 추진협의체 구성 '11.12) 등 항공·해양 레저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.

3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'11년 중 보금자리주택 21만 호(수도권 18만, 지방 3만/분양 10만, 임대 11만)를 공급하고, 소형주택 비중을 확대(60㎡이하 20→50% 이상)하겠습니다.
 - 보금자리지구내 사회적기업 유치 및 중저가 호텔부지 공급
- 민간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시장상황을 고려해,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재개발·뉴타운 활성화 등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.
 - 1~2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('10. 1.5→'11. 4만호)
 - 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확대('10년120억 원→'11년500억 원)
- 기초수급자 주택 개보수(12천 호), 노후임대단지 시설개선(183개), 전세자금 지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 - 주택기금을 통해 서민·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전세자금('11. 5.7조 원)을 차질 없이 지원
 -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검토

- 지역별 수급상황 상시점검 등으로 주택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.
-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 - 영구·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5%(현행 2~3% 수준)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('11.3)
 -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을 민영주택까지 확대('11.3)
 -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시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('11.3)
 - 보금자리단지내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고, 육아지원 커뮤니티 사업도 활성화
 - ※보육시설 최소설치기준 : (300세대) 21→30인, (500세대) 40→50인
 -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전세·구입자금 지원자격을 완화하고,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금리우대('11.3)
 - ※(신혼부부) 전세자금 연소득 3,000→3,500만원, 구입자금 2,000→3,000만원 이하, (다자녀가구) 구입자금 연4.7→4.2%

4 철도중심 교통기반 구축 등 녹색성장을 가시화하겠습니다.

-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중심의 거점간 수송체계를 구축하고, 빠르고 쾌적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 -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우선투자(수서~평택, 원주~강릉착공)하고, 인천공항철도 KTX 연결사업 착수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.
 - ※수도권 광역급행철도(GTX)사업추진 본격화(광역철도 지정, 예비타당성 조사)
 - 광역급행버스 노선 추가 확대(12→17개) 및 간선급행버스체계(BRT) 단계별 확충
 - 편리한 연계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본격 시행(8개소)하고,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 및 시외버스도 휴게소 환승 검토 추진
- 녹색건축물 인증제를 활성화하고, “녹색도시 개발계획 수립기준” 마련 등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- 해양을 활용한 전략자원 확보와 해양 연구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.
 - 해양에서 리튬·히토류 등 희귀자원 추출기술 상용화를 추진('13) 하고, 남극 대륙기지 본격 건설
- 430km/h급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('12)하고, 전기차 충전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미래형 교통인프라를 개발하겠습니다.

5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 등 국토해양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.

○ G20를 통해 높아진 국력을 바탕으로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을 추진하겠습니다.

– 고속철도·항만개발 등 교통분야 해외진출 지원 확대

※글로벌 인프라펀드 투자확대('12까지 2조 원 조성), 진출지역 및 공종다변화

○ G20 국가 수준에 걸 맞게 재난 및 재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.

– 화재·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고층건축물 안전기준 보완

– 서해5도 등 낙도 주요항을 국가지원항으로 지정, 해양영토 관리수준 향상

○ 국토해양분야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, 동반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.

– 건설업 하도급 심사 강화, 임금 제대로·제때 받기 추진

※발주청에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신설, 임금체불업체 공공공사 참여제한 등

– 선·화주 협의체 운영, 중소선사 안전역량 강화

– 근거리 국가에 저비용항공사 취항을 지원하고, 소형 항공기 좌석기준 상향(19→50석)하는 등 소형 항공운송사업 활성화



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



두바이 버즈칼리파